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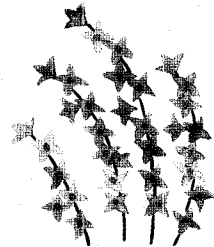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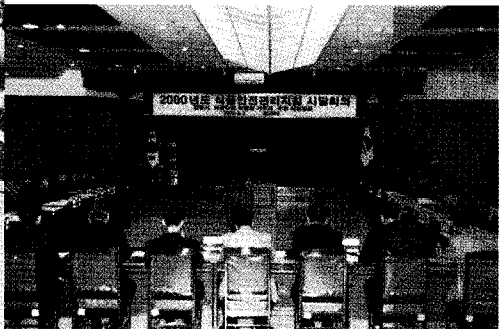
새로운 출발 도약하는 새 김천



경북 김천시장
박 팔 용

2000년 도민체전과 시 승격 50주년 기념 행사를 앞두고 화장실문화 개선을 시장이 직접 발벗고 나서 현장을 지휘하는 김천시를 찾아 화장실문화 개선의 내용을 들어보기로 한다.

흔히들 화장실은 사소한 부분으로 취급하기 쉽지만 외지인들이 우리시를 방문하게 되면 제일 먼저 찾게 되는 곳이 화장실인 만큼 깨끗한 도시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지난해 9월부터 화장실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 김천시에서는 「2000 식품안전관리지침 시달회의」에서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추진 사례발표회」를 갖고 아름다운 화장실로 선정된 곳을 둘러 보았다.

화장실문화 개선에 대한 시민들의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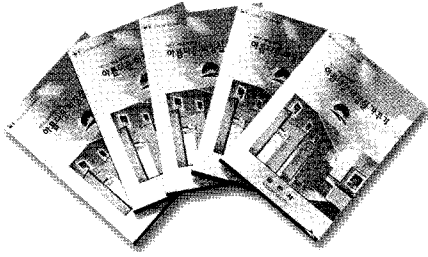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광산업에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 있지만 한국관광공사에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불결한 화장실」문제가 한국방문의 3대 불편요소로 지적된 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개선의 필요성을 절감합니다.

시장의 직접 점검에 참여 공중화장실의 위치 및 현재 상황을 질문하고 인근 행사시에 공중 화장실에 대한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하자 관련부서 직원들도 중점관리 대상 업소 3백 40개소(공중 107, 식품 233)를 선정하고 대책마련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자진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시가 모범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부터 모범적으로 본청화장실 6개소에 대한 개·보수를 시작하여 시청화장실이 마치 사진 전시장으로 오인할 정도로 새롭게 단장을 하였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개선작업 유도,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를 가꾸기 위해서는 기본설계 및 시공이 잘 되어야 하겠지만 이미 신축되어 사용되는 화장실의 개·보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관련업계에 있는 시민들이 화장실문화 개선에 대한 투자를 낭비의 요인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하고 특히 임대건물을 운영 하는 경우가 심하였습니다.

이에 관련자료를 수집하여 체계적인 개선 계획을 세우고 지역 언론기관 및 NGO, 관련



공무원들을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평가위원에 위촉하여 김천사랑의 차원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였습니다.

화장실 문화개선에 대한 전 시민적인 공감대 형성과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대대적인 홍보 활동과 평가위원들이 고생한 결과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비자금을 털어 화장실을 안락한 분위기로 '확' 바꾼 「키작은 모차르트(대항면 직지사 상가)», 화장실 관련 용품을 구하기 위하여 대구, 대전광역시까지 동분서주하여 개선한 「자유예식장(남산동 소재)», 토속적인 향수를 느낄 수 있도록 전통적인 용품을 사용하여 개선한 「기차길 옆 오막살이(대항면 소재)」등 작년 말까지 14개 업체가 시민이 뽑은 「아름다운 화장실」에 선정되어 화장실 입구에 휘장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은 무엇입니까?

우리시는 '전국 제일의 화장실로 승부를 건다'는 각오로 어떤 도시들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도록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 지속적으로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 가꾸기 사업과 화장실 문의 개방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상의 어려운 점은 있지만 가능하면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아직은 부족한 공중화장실을 정비하고 신·개축시에는 주변 환경과 건물 구조 및 업종에 걸맞게 환경친화적이고 주위와 조화되며 안락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독창적인 화장실로서 이용자들이 편리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업체 개선을 계획하는 지자체는 과거와 같이 관이 혼자서 주도하여 추진하면 실효성을



▲ 토속적인 향수를 느낄 수 있도록 전통적인 용품을 사용하여 개선한 기차길 옆 오막살이(김천시 대항면 소재)의 화장실 모습.

거두기 쉽지 않아 지역 언론기관 및 NGO와 같이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호텔, 백화점등 대형업체는 화장실에 마케팅 개념이 도입되어 스스로 개선작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 대부분의 업소에서는 화장실문화 개선사업에 대한 투자를 낭비의 개념으로 인식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결한 화장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명단공개도 필요할 수 있지만, 아름다운 화장실에 대한 사진자료 등을 수집하여 보여주고 선진국에서는 화장실문화 개선사업이 마케팅의 커다란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례를 홍보하여 「깨끗하면 장사가 잘 된다」는 인식을 심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전 시민의 참여없이 실효를 거두기 어려워 시민들의 자율참여를 유도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직 부족한 면은 있지만 우리시의 홈페이지(www.kimcheon.kyongbuk.kr)를 참조하시면 화장실 문화개선 사업에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력한 만큼 반드시 성과는 생깁니다.